

AI ‘글로벌3강’ 한다더니… GPU 구입에 편중된 추경안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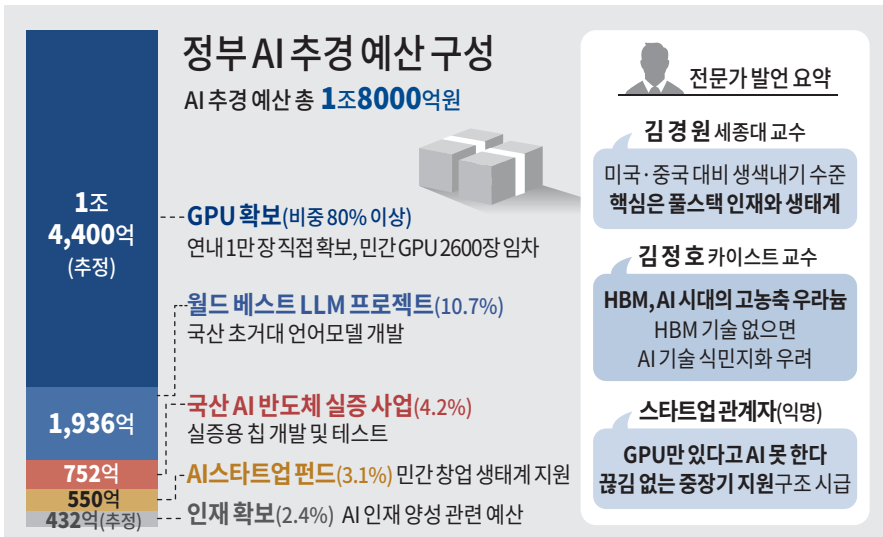
정부, 연내 첨단 GPU 1만장 확보
LLM·NPU 개발 등에 자금 투자
여야 대선 후보도 AI공약 쏟아내

업계 “단기적 양적 투자 머물러
구체적 실행 가능한 전략 필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인공지능(AI) 부문에 약 1조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IT업계에서는 예산집행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1조8000억원의 추경으로 GPU 확보 등을 통해 ‘전 세계 AI 3강 도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 투자에 치우쳐 글로벌 흐름과 괴리된다는 지적이다. IT업계 관계자들은 여야 대선후보들의 AI 관련 공약들도 정부의 대책과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24일 정부의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에 첨단 GPU 1만장을 확보하고 민간 보유 GPU 2600장도 임차해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동시에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1936억



원), 국산 AI 반도체(NPU) 실증 사업(752억원), AI 스타트업 펀드(550억원) 등을 추진하며 AI 생태계 전반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예비후보들도 ‘AI 대전’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GPU 5만장 확보와 AI 기반 사회 구상을 내놓았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00조원 투자를 약속하며 교육 개편과 미래전략부 신설을 주장했다.

김경수·안철수 후보 역시 각기 다른 규모의 투자 계획과 AI 인프라 확충

방안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및 공약을 두고 업계에서는 단기적 양적 투자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로 GPT-4, Llama 3 등 글로벌 초거대 AI 모델은 수만 장의 GPU, 고성능 연산 인프라, 대규모 데이터셋, 고급 알고리즘과 인재 등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특히 정부 추경 예산의 80% 이상이 GPU 확보에 편중된 반면, 인재 확보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2.4%인 45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확보를 장담한 엔

비디아의 H100은 1개당 5000만원 꼴인데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도 받지 못해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과연 추경 예산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 AI 3강 도약’에도움이 될지도 논란이다.

김경원 세종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수백조 원대 투자에 비하면 한국의 대응은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핵심 경쟁력은 AI인재 확보와 생태계”라고 지적했다.

AI 연산 병목이 GPU보다 고대역폭 메모리(HBM)에서 발생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는 최근 국회 포럼에서 “HBM은 AI 시대의 고농축 우라늄과 같다”며, 설계·냉각·패키징·파운드리를 아우르는 기술이자 협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HBM 기술이 없다면 한국은 AI 기술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포럼에 참석한 학계·산업계 인사들도 HBM 중심 전략 외에도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전문가들은 양성 인원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율성과 장기 투자가 가능한 연구 환경이라며, 기존 실적 중심·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AI 정책과 비교 되는 게 중국과 중국에서 등장한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다. 딥시크는 국내 인재 양성 체계에 대한 경고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딥시크는 칭화대, 베이징대 출신 139명의 젊은 연구자들이 설립한 신생 기업으로, 불과 수개월 만에 자체 LLM을 연이어 공개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딥시크의 ‘딥시크R1’은 일부 영역에서 챗GPT 등을 앞설 만큼 고도화됐다. 심지어 이들이 딥시크R1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한 것은 미국의 대(對) 중국 규제로 인해 엔비디아 최고 성능 GPU인 H100이 아닌 하위 성능 GPU A100이었다.

업계에서는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지적한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어야 진짜 정책”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삼성SDS, 영업이익 2685억… 18.9% 증가

1분기 잠정실적… 매출 3조4898억
IT 서비스 매출 비중 40% 첫 돌파

삼성SDS는 24일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1분기 매출은 3조4898억원, 영업이익은 268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5%, 영업이익은 18.9% 늘었다.

IT(정보기술) 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증가한 1조6004억원으로 집계됐다.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23% 성장한 6529억원을 달성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IT 서비스 부문 매출 비중이

40%를 돌파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CSP) 매출은 ▲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비스 확대 ▲고성능 컴퓨팅 서비스 증가 ▲대규모 민관협력형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확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2% 급증했다.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업(MSP)은 금융 및 유통 기업 대상 클라우드 전환·구축, 글로벌 전자 자원 관리(ERP), 공급망 관리(SCM) 사업 확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성장했다.

물류 부문 매출액은 신규 고객 확보, 미국 상호관세 발효 전 조기 선적 수요

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1.6% 늘어난 1조8894억원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성장한 2850억원을 기록했으며, 가입 고객은 2만200여개사로 증가했다.

삼성SDS 관계자는 “올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산업 환경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및 생성형 AI 서비스, 첼로스퀘어를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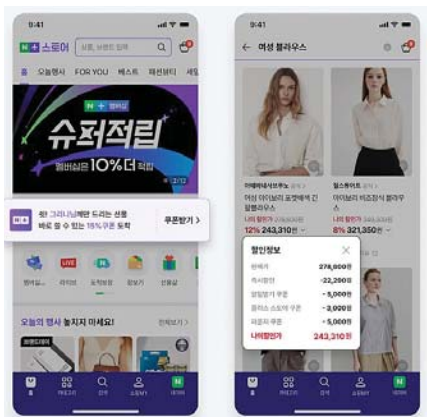
/김현정 기자 hjk1@

네이버, 새 쇼핑앱 순항… 정교해진 AI 추천에 단골 매칭율 ‘쑥’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흥행 신호
‘라운지 멤버십’ 가입자 382% ↑

인공지능(AI) 쇼핑 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초기부터 순항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12일 론칭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AI 추천이 강화되면서, 브랜드와 단골 고객의 매칭률이 높아지고 있고 ‘네이버배송’의 속도와 품질이 안정화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된다고 24일 밝혔다.

네이버플러스스토어는 ‘하이퍼클로바X’와 개인화 추천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취향과 쇼핑 맥락을 분석해 개인마다 각기 다른 혜택과 상품이 발견될 수 있도록 추천한다. 사용자 맞춤형 프로모션, 쿠폰, 단골 혜택 알림도 적극적으로 노출돼 개인화 경험을 높이면서



지난해 하반기 네이버 앱을 통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상반기 중 별도 앱(APP)으로 출시된다. /네이버

판매자와 단골 사용자 간 매칭률도 향상되고 있다.

탐색이 활발한 헤비 쇼핑유저일수록 더욱 정교한 추천 결과가 제공되는데, 네

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에선 AI 추천 및 탐색 영역을 통한 거래 비중이 네이버 앱 대비 20%p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자들 역시 ‘네이버플러스스토어’ 앱을 통한 단골 고객 확보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브랜드스토어의 30%가 첫구매 쿠폰을 발행 중이며, 브랜드스토어의 20%는 단골 혜택을 높이는 재구매 쿠폰도 활용 중이다.

각 브랜드스토어가 단골고객을 관리하고 소통하기 위해 직접 운영하는 자체 멤버십 서비스인 ‘라운지 멤버십’의 누적 가입자 수는 앱이 출시된 3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했다.

단골 마케팅은 실제 판매자들의 사업 성장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브랜드스토어는 3월 평균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김서현 기자

SKT,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절차 간소화

T월드·홈페이지 프로세스 변경
로밍요금제 해지만으로 가입 가능

SK텔레콤이 고객의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유심(USIM)보호서비스’의 가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SK텔레콤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SK텔레콤은 24일부터 로밍 요금제 해지만으로 바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T월드 앱과 홈페이지의 가입 프로세스를 변경했다.

고객 상담도 강화했다. 114 고객센터의 주간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새롭게 운영되는 사이버 침해 사고 상담센터(080-800-0577)는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갖췄다.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객을 위해 114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서비스 가입 안내와 함께 가입 절차를 돕는 ‘직접 안내 서비스’도 병행된다.

오프라인에서도 전국 2600여 SKT 매장을 통해 간편한 가입 안내가 가능하다.

14개의 SK텔레콤망 알뜰폰 고객들 또한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각사 고객센터 및 순차적으로 마련될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김서현기자 seoh@

음악분야 예비 창작자 무료 강의 진행

카카오창작재단 ‘그로우업 특애티크’
도코·브라더스·박성일 강연 나서

카카오창작재단은 음악분야예비창작자를 위한 강연 프로그램 ‘제8회 그로우업 특애티크’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그로우업 특애티크는 예비 창작자를 비롯해 문화 콘텐츠 산업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오프라인 강이다. 이달 25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개최되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함께한다.

제8회 그로우업 특애티크에서는 음저협 소속 회원이자 업계를 대표하는 음악 전문가들이 강연에 나서, 예비 창작자들에게 생생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한다.

강연자는 ▲치즈, 이하이 등과 감성을 담은 발라드를 만들어온 가수 겸 프로듀서 도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히트곡을 작업한 가수 겸 프로듀서 브라더스 ▲‘폭삭 속았수다’, ‘이태원 클라쓰’, ‘시그널’, ‘미생’ 등 인기 드라마의 OST를 책임진 음악감독 박성일 등으로 구성된다.

재단은 올해 웹툰, 웹소설뿐만 아니라 음악과 영상 분야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카카오엔터 소속 창작자와 비즈니스 노하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접목해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재단은 전했다. /김현정 기자